# < 행렬의 연산 >

행렬의 성분이 실수인 행렬의 덧셈과 곱셈 연산에 대하여 알아보자.

#### 정의 1.3.1 [행렬의 상등]

행렬 A와 B의 크기가 같고 행렬의 각 성분이 서로 같으면 두 행렬은 같다. 즉, 행렬  $A=[a_{ij}]_{m\times n}$ 과  $B=[b_{ij}]_{p\times q}$ 일 때,  $A=B\Leftrightarrow m=p, n=q$ 이고 모든  $i=1,2,\cdots,m$ 과  $i=1,2,\cdots,n$ 에 대하여  $a_{ij}=b_{ij}$ 이다.

행렬의 덧셈과 곱셈을 정의하기 전에 덧셈과 곱셈에 관한 항등원을 먼저 정의하자.

## 정의 1.3.2 [영행렬과 항등행렬]

(a) 크기가  $m \times n$  인 행렬의 모든 성분이 0일 때, 이 행렬을 영행렬(zero matrix)이라 하고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.

$$\mathbf{0} = [0]_{m \times n}$$

(b)  $n \times n$  인 정방행렬에서 대각성분이 모두 1이고 대각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 모두가 0 인 행렬을 항등행렬(identity matrix)이라 정의하고  $I_n$ 이라 표시한다. 즉,  $I_n$ 은 다음과 같은 형태이다.

$$I_2 = \begin{bmatrix} 1 & 0 \\ 0 & 1 \end{bmatrix}, I_3 = \begin{bmatrix} 1 & 0 & 0 \\ 0 & 1 & 0 \\ 0 & 0 & 1 \end{bmatrix}, I_n = \begin{bmatrix} 1 & 0 & 0 & \cdots & 0 \\ 0 & 1 & 0 & \cdots & 0 \\ \vdots & \vdots & \vdots & \cdots & \vdots \\ 0 & 0 & 0 & \cdots & 1 \end{bmatrix}$$

크기에 상관없이 항등행렬을 I로 나타내자.

행렬의 덧셈과 상수곱에 관하여 정의하자.

### 정의 1.3.3 [행렬의 연산]

(a) (행렬의 상수곱) c가 상수일 때, 행렬 A에 상수 c의 곱은 행렬 A의 각 성분  $a_{ij}$ 에 상수 c를 곱하는 것이다.

$$(cA)_{ij} = ca_{ij}$$

(b) (행렬의 덧셈) 행렬 A와 B의 크기가 같을 때, 행렬의 덧셈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. 두 행렬의 합 A+B의 (i,j)번째 성분  $(A+B)_{ij}$ 는 행렬 A의 (i,j)번째 성분  $a_{ij}$ 와 행렬 B의 (i,j)성분  $b_{ij}$ 의 합이다. 즉,

$$(A+B)_{ij} = a_{ij} + b_{ij}$$
.

행렬의 상수곱과 덧셈의 정의에 의하여 크기가 같은 행렬 A와 B의 뺄셈은 다음과 같다.

$$(A-B)_{ij} = a_{ij} - b_{ij}$$

## 정리 1.3.4 [행렬의 덧셈과 상수곱에 관한 연산법칙]

 $c_1$ 과  $c_2$ 가 상수이고, A, B, C가 크기가 같은 행렬이며  $\mathbf{0}$ 를 주어진 행렬과 크기가 같은

영행렬이라 하면 다음 연산법칙이 성립한다.

- (a) A + B = B + A
- (b) (A + B) + C = A + (B + C)
- (c) 0 + A = A + 0 = A
- (d)  $A + (-A) = \mathbf{0} = (-A) + A$
- (e)  $(c_1 + c_2)A = c_1A + c_2A$
- (f)  $c_1(A+B) = c_1A + c_1B$
- (9) 만일  $c_1 A = \mathbf{0}$  이면  $c_1 = 0$  이든지 또는  $A = \mathbf{0}$  이다.

이제 행렬의 곱셈에 관하여 정의하자.

### 정의 1.3.5 [행렬의 곱셈]

 $A=[a_{ij}]_{m\times p}$ 이고  $B=[b_{ij}]_{p\times n}$ 일 때, 두 행렬 A와 B의 곱 AB는  $m\times n$  행렬로 정의되고 AB=C라 하면 행렬 C의 각각의 성분은 다음과 같다.

모든  $i=1,2,\,\cdots,m$  과  $j=1,2,\,\cdots,n$ 에 대하여  $AB=C=\left[c_{ii}\right]_{m\,\times\,n}$ 은

$$c_{ij} = a_{i1}b_{1j} + a_{i2}b_{2j} + \dots + a_{ip}b_{pj} = \sum_{k=1}^{p} a_{ik}b_{kj}$$

이다.

(예제 1) 
$$A = \begin{bmatrix} 1-2 \\ 3 \end{bmatrix}$$
,  $B = \begin{bmatrix} -30 \\ 1 \end{bmatrix}$ ,  $C = \begin{bmatrix} 1-22 \\ 4-13 \end{bmatrix}$ ,  $D = \begin{bmatrix} 1 & -2 \\ 2 & 4 \\ -1 & 3 \end{bmatrix}$ 

다음 행렬의 연산이 존재하면 행렬을 구하여라.

- (1) 3A 4B
- (2) B + C
- (3) AB
- (4) BA
- (5) *DC*
- (6) CD
- (7) AD

결론적으로 행렬의 곱 AB와 BA가 모두 정의될지라도 일반적으로  $AB \neq BA$ 이다. 따라서 행렬의 곱에 대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.

 $A=\begin{bmatrix}1&0\\0&0\end{bmatrix}$ 이고  $B=\begin{bmatrix}0&0\\0&1\end{bmatrix}$ 일 때  $AB=\mathbf{0}$ 이다. 즉 행렬 A와 B가 모두 영행렬이 아니어도 행렬의 곱 AB가 영행렬이 될 수 있다.

### 정리 1.3.6 [행렬의 곱셈법칙]

c가 상수이고  $A=[a_{ij}]_{m\times p}$ ,  $B=[b_{ij}]_{p\times q}$ ,  $C=[c_{ij}]_{q\times n}$ 이면 아래 연산이 정의되고 또한 이 연산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.

(a) 
$$(AB)C = A(BC)$$

(b) 
$$c(AB) = (cA)B = A(cB), -(AB) = (-A)B = A(-B)$$

(c) 
$$(A + B) C = A C + B C$$

(d) 
$$A(B+C) = AB+AC$$

(e) 
$$I_m A = A = A I_p$$

연립방정식

$$a_{21}x_1 + a_{22}x_2 + \cdots + a_{2n}x_n = b_2$$
 
$$\vdots$$
 
$$a_{m1}x_1 + a_{m2}x_2 + \cdots + a_{mn}x_n = b_m$$
 의 계수행렬은  $A = \begin{bmatrix} a_{11} & a_{12} & \cdots & a_{1n} \\ a_{21} & a_{22} & \cdots & a_{2n} \\ \vdots & \vdots & \cdots & \vdots \\ a_{m1} & a_{m2} & \cdots & a_{mn} \end{bmatrix} = [\mathbf{a_1} \ \mathbf{a_2} \ \cdots \ \mathbf{a_n}]$  이고 상수행렬  $\mathbf{b} = \begin{bmatrix} b_1 \\ b_2 \\ \vdots \\ b_m \end{bmatrix}$  이다. 
$$\mathbf{x} = \begin{bmatrix} x_1 \\ x_2 \\ \vdots \\ x_n \end{bmatrix}$$
 이라 하면 위의 연립방정식은 행렬의 곱  $A\mathbf{x} = \mathbf{b}$ 로 표현된다.

$$m{x} = egin{bmatrix} x_1 \\ x_2 \\ \vdots \\ x_n \end{bmatrix}$$
 이라 하면 위의 연립방정식은 행렬의 곱  $A \, m{x} = m{b} \,$ 로 표현된다.